

6월 구역모임

예배 생활

1. 환영 Welcome

- ◎ 인사와 교제
- ◎ 감사와 나눔

2. 찬양 Worship

- ◎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20장)
- ◎ 비둘기 같이 온유한 (찬187장)
- ◎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214장)
- ◎ 예수 앞에 나오면 (찬287장)

3. 말씀 Word

| 생각하며 읽기 |

- ① 예배는 어떤 태도로 드려야 합니까?
- ② 예배의 모든 순서가 은혜의 통로임을 압니다.
- ③ 예배 때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함을 압니다.

예배는 성도와 성삼위하나님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힘주시는 일이 예배를 통해 이뤄집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에는 감사, 찬양, 감격과 감동이 어우러집니다.

(1)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

교회 생활의 기본은 예배드리는 자세입니다.

“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4:23~24).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물론 평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시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집중적으로 성도들의 존재 안으로 치고 들어오시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 생활에 곤고함을 겪기가 쉽습니다. 예배의 기본자세를 바로잡아야 하는 절실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예배를 대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를 본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면 나는 예배의 주체가 아니라 관객이 됩니다. 이때 예배를 인도하는 주체는 목회자, 사회자, 기도자, 찬양대 등이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본다’는 말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과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구약에서 성소의 휘장은 제사장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갈라놓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더 이상 영적인 직분에 있어서 제사장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의미가 없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벧전2:9)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전하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에 객체 혹은 관객으로서가 아니라 주체요 참여자로 오는 것입니다.

(2) 예배의 성패는 예배 전에 결정된다

안타깝게도 개신교 본연의 '만인제사장' 신학은 오늘날 교회에서 본래의 건강성을 상실한 채 왜곡되어 있습니다. 교역자와 차등이 없는 평신도의 영적 권한은 강조되는 반면 제사장 본연의 태도와 책임은 소홀히 여겨져, 평신도의 지적 수준은 상승한 데 비해 영적 수준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게 하기 위해 제사 전에 여러 종류의 정결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마음과 몸과 영을 신실하게 살피 자신이 집례하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정신은 오늘날 모든 평신도가 유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주일 예배가 온전히 드러지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예배자로서의 몇 가지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 토요일 저녁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주일 아침에 피곤한 몸으로 예배에 임해 은혜받기를 구하는 것은 공부하지 않고 일등하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예배가 시작되기 10분 전에는 입실하여 예배드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교인들 중에는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조금도 서두름 없이 커피를 들고 걸어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가 진행되는 중간에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유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자유라기보다는 방종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무책임한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여야 합니다. 적어도 10분 전에는 예배실에 들어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배를 통해 찾아오실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할 때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3) 하나님은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은혜 주신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모든 초점을 설교에 맞춥니다. 예배에 습관적으로 늦는 성도들의 경우 아마도 그분들의 심중에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온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모든 예배의 순서는 설교를 향해 나아가고, 설교가 정점된 후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설교가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설교 중심의 예배관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공중 기도 중에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시작한다는 말일까요? 설교가 곧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배는 찬양과 예배로의 부르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예배학적으로 본다면 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11:6).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은 예배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행동하십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전 찬양, 예배로의 부르심, 차임, 찬양, 고백의 기도, 용서의 말씀, 공중 기도, 설교, 화답의 찬송, 봉헌의 시간, 파송의 노래, 축도 등 순서 하나하나가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예배의 한 대목 한 대목은 씨줄과 날줄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된 성령의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각각의 도구들을 당신의 악기로 활용하셔서, 예배를 통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십니다. 그 어느 순서든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아내기에 부족한 대목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예배 전체의 흐름을 신실하게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신비입니다. 주일 예배 때 함께 부르는 찬양 속에서 깊은 위로를 얻기도 하고, 공중 기도자의 간절한 기도가 내 마음을 하늘에 올려 드리는 것같이 느껴지기도 하며, 함께 부르는 찬송 속에서 낙심한 마음이 큰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모든 순간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흐름을 쫓아가면서 전심으로 각 마디들에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영적 자주국방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교회에 보내신 도구인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설교자도 사람인지라 어려운 일을 겪거나 시험에 들거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 설교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설교 중심의 예배자는 주일에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갈 새로운 영적인 활력을 얻는데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자신의 영적 생존을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만 맡깁니까? 설교자의 실패가 곧 나의 영적 실패가 되고, 설교자의 성공이 곧 나의 영적 성공이 되는 것은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영적 자주 국방이라고 합니다.

설교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설교자의 실패가 회중 전체의 실패로 확대되지 않게 하시고 “너는 실패했지만 나는 내 백성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라고 하시며 예배의 다른 순서를 통해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예배의 모든 순서에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뜻을 쏟아붓는 것은 성도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비결입니다.

(4) 예배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레6:16-17).

구약 시대의 제사는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그것입니다. 각각의 제사에는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 때 하나님이 강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누룩을 넣어 부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에는 마음을 부풀리거나 치장하지 말고 정직과 진실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출20:25).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나 페르시아 지역의 신전들이 얼마나 매끈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제단을 쌓을 때 돌을 정으로 쪼아 만들지 말라고 모세에게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 예배자로 나오는 자의 자세는 정직하고 진솔해야 합니다. 옷차림은 단정히 하고 얼굴에는 행복한 표정을 짓고 예배드리러 오지만, 사실 한 주를 살다 보면 내면이 썩어 문드러지고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자신을 거룩하게 포장하지 않고 상하고 깨어진 채 모든 아픔을 안고 가야 합니다. 손에 피가 묻었으면 묻은 대로, 눈에 눈물 자국이 있으면 자국이 있는 대로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체로 서양 사람들에 비해 동양 사람들은 싫으면 싫은 내색이 표정에 나타납니다. 저는 그 사실이 예배에서만큼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얼굴에 나타나는 부분과 내면의 상태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지친 내 얼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무개가 세상 살면서 지치고 힘들었구나. 내가 오늘 위로해 주어야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면 성도들 앞에서도 그대로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서 있는 성도 중 누군가가 우리의 표정을 보고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치장하고 썩어 바르고 나오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은 가장 정직한 사람입니다. 예배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상한 것, 아픈 것, 깨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성도들이 서로 용납하고 기도해 주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한 주간 예배로 향하는 발걸음을 막을 만한 어떤 시험거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흔히 초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나서 예배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아내와 다투어서 예배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화를 품은 그대로, 아내와 다투어 깨어진 마음 그대로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나로부터 다시 시작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끌어올리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인 예배자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예배는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설교에 집중하는 예배에서 벗어나 모든 순서에서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십시오. 지금의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 삶의 적용을 위한 나눔 ✦

- (1) 예배생활에 대해서 강조한 네가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 (2) 위의 네가지를 다시 한번 환기해 보면서, 오늘 공과에서 나의 예배생활에 대해 주는 도전, 자극, 격려, 혹은 위로가 있다면 함께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 (3) 혹시, 예배자로서의 나의 삶이 더욱 온전해지기 위해 새롭게 다짐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나눠보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해 줌으로 마무리합니다.

📖 4. 중보기도 Work

- ◎ 가정과 개인을 위한 기도
- ◎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한 기도
- ◎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 합심기도 후 ‘주기도’로 구역모임을 마칩니다.